

“야구에서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홍
상
삼



‘부활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188cm 장신·150km 강속구로 데뷔 초 눈길
고질적 제구력 난조 등 부진에 두산 방출 후 KIA 이적
서재용 코치, 본인만의 장점 부각하며 자신감 부여
선발-필승조 다리 역할 톡톡...전천후 투수 활약

‘믿음’ 속에 KIA타이거즈의 홍상삼이 ‘믿음맨’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올 시즌 KIA는 탄탄한 마운드로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말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하면서 영봉패는 당했지만 마운드도 두 경기를 3실점으로 책임지면서 제 몫 이상을 해줬다.
선발 양현종과 브룩스가 각각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으로 역할을 하자 불펜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끝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30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마운드가 꾸준히 잘해주고 있다. 선발 투수, 불펜 다 잘해주고 있다. (지난 주말) 공격적인 부분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투수들은 잘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외국인 원투펀치 브룩스와 가능성으로 무게를 더한 선발진에 박준표, 전상현, 문경찬 등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도 팀 승리를 책임지고 있는 필승조는 10개 구단 어느 팀에 밀리지 않는다.
고민 많던 ‘연결 고리’ 자리에 홍상삼이 들어서면서 KIA 마운드 짜임새가 더해졌다. 고군분투하던 필승조에도 한결 여유가 생겼다.
‘믿음’이 홍상삼의 부활을 위한 씨앗이 됐다.
188cm 장신인 홍상삼은 150km 넘는 강속구로 눈길을 끌었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와 공황 장애 등으로 부침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두산에서 방출됐다.
KIA에서 새 동지를 둔 홍상삼에게 서재용 코치

는 약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했다. 현역 시절 컨트롤 아티스트로 명성을 날리면서 제구를 강조해온 서재용 코치지만 홍상삼에게는 ‘제구’가 아닌 ‘구위’를 강조했다. 약점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장점을 끌어내도록 자신감을 살려줬다.
홍상삼다운 피칭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보여준 서재용 코치. 선발 싸움에서 밀리면서 2군에서 시즌은 시작했지만 때를 기다린 홍상삼은 지난 6월 2일 콜업을 받았고, 마운드 과부하를 막는 전천후 투수로 투입됐다.
지난 30일 경기 전까지 9.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9개의 볼넷을 허용하고, 5개의 폭투를 기록하는 등 제구 약점은 여전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구위와 변화구, 그리고 자신감으로 마운드의 소금 역할을 해주고 있다.
‘중요한 선수’라는 믿음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연 홍상삼은 “경기에 나가는 게 좋다. 올라갈 때마다 믿음을 갖고 올려주시는 거라서 감사하다”며 “부담은 있지만 막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선발 실점, 팀 실점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후배들이 필승조에서 잘 버티고 있다. 앞에서 힘든 것을 덜어줘야 하는 역할이니까 후배들 위해서 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선발로 준비를 했지만 불펜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은 없다. 적응도 이미 끝났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 몫을 해나가고 있는 홍상삼은 ‘자신감’을 달라진 부분이자 앞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으로 언급했다.
홍상삼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마운드에 올라갈 때 긴장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두산에서도 공이 안 좋다가보다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위축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안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위기도 좋고 코치님, 감독님도 자신감 있게 하라고 하니 그걸로 충분히 힘이 생긴다. 그런 자신감 있으면 마운드에서 잘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후배들을 위해 잘하고 싶다는 홍상삼은 후배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다.
“나는 손가락 없는 것이다”며 웃은 홍상삼은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을 애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다. 후배들이 타자를 피하지 않고 승부하려고 한다. 특히

(문)경찬이의 자신감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월 마지막 경기 우천 취소 10월 7일 더블헤더로 진행

KIA 타이거즈의 6월 마지막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지난 3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한화 이글스의 2020시즌 4차전이 비로 열리지 못했다.
전날까지 비가 많이 온 데다 경기장 정비 작업 중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결국 우천취소가 결정됐다. 혹서기인 7-8월에는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는 10월 7일 더블헤더로 진행된다.
한편 출격을 준비했던 KIA 임기영이 하루 밀어 1일 경기 선발로 등판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관람중 음식물 금지·마스크 착용

KBO, 코로나 대응 3차 통합 매뉴얼 발표...동반인도 좌석 1칸 간격

KBO가 정부의 관중 입장 허용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대응 3차 통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야구 관람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동반인도 1칸 이상 좌석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관람석의 물·주류 등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도 금지된다.
앞서 KBO는 두 차례에 걸쳐 안전한 개막과 운영을 위해 통합 매뉴얼을 제정했다. 3차 매뉴얼은 안전한 관람을 목표로 입장부터, 응원, 식음료 취식 과정까지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8일 방역 당국이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야구장 개방은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로, KBO와 각 구단은 관중 입장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마쳤다.
3차 매뉴얼에 따라 정보 확인을 위해 관람객은 모든 티켓을 온라인 예매 카드 결제로만 구입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 예매 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동의 절차가 추가된다. 안전수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매가 불가능하다.
야구장에서는 입장 때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가 넘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동반인도 1칸 이상 좌석 간 간격을 두고 앉게 된다.
각 구단은 출입문과 화장실, 매점 등에 거리 유지를 위한 ‘1M 거리두기 스티커’를 제작해 바닥에 부착한다.
야구장 내 식음료 매장은 운영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야구장·축구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람석에서의 음식물 섭취와 반입이 당분간 금지된다. 단, 관람석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의 섭취는 허용된다.
좌석이 확정되지 않은 자유석과 키즈존, 놀이시설처럼 사람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당분간 운영이 중단된다. 밀폐된 흡연실도 운영되지 않는다.
비밀 분출 우려가 있는 구호나 응원가, 접촉을 유도하는 응원도 제한했다.
KBO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소와 다른 제한적인 관람으로 관중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안전한 관람을 위해 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규칙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허을

광주 FC, 로테이션으로 두 토끼 잡는다

주전 선수들에 휴식... 오늘 김포시민축구단과 FA컵서 전력 재점검

광주FC가 ‘로테이션’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광주가 1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포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020 하나은행 FA컵 3라운드(24강) 경기를 갖는다.
상승세가 꺾인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하고, 순위싸움을 위한 전력 점검을 한다.
광주는 5월 부진을 털고 4경기 무패(3승 1무)로 K리그 무대 적응을 끝냈지만, 최근 ‘강호’ 전북 현대와 포항스틸러스를 만나 연패를 기록하며 숨을 고르고 있다.
분위기 전환을 목표로 한 이번 경기에서 광주는 ‘휴식’과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 9일 동안 3경기를 소화하느라 체력 소모가 컸던 펠리페, 여름, 박정수 등 주전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취하게 된다.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광주는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며 5일 대구와의 홈경기에 대비하고, 대신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을 FA컵 경기에 투입해 기량을 점검하면서 운영의 폭을 넓히게 된다.
로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전력은 만만치 않다. 지난 시즌 주장으로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던

김태운과 올 시즌 이적한 한희훈, 유스 출신인 이희균·정현우·허을 등이 출격 준비를 마쳤다. FA컵을 계기로 출장 기회를 늘리기 위한 어필 무대가 예고된다.
이번 경기 상대인 김포(K3리그)는 2라운드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을 4-2로 이겼다. 올 시즌 리그 16개팀 중 10위에 그치고 있지만 K리그에서 활약했던 감독과 선수들로 팀이 꾸려졌다.
‘적도마’ 고정훈이 사령탑으로 김포를 이끌고 광주를 찾는다.
구 감독은 지난 2018년 FC안양을 맡으면서 광주 특징도 잘 알고 있다. 당시 상대전적에서도 1승 2무 1패로 팽팽하게 맞섰다.
또 전북, 경남FC, 수원FC 등에서 활약하며 K리그 통산 272경기를 소화한 김동찬과 포항, 제주 유나이티드를 거친 김원일, 수원삼성서 활약한 이기태 등이 포진해 있다.
단판 승부인 만큼 FA컵에는 변수가 많다. 전반 초반부터 속도감 넘치는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광주가 김포를 꺾고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고 전력 구성 옵션도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